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시·수탁 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시 과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신치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김승남

수시과제

01 한옥 등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2015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이 포함됨에 따라, 건축자산 관련 통계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상에서는 한옥의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옥에 대한 건축물 정보가 건물마다 다르며 부정확하다. 따라서 한옥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축물대장과 유사 건축물정보 관련 문서 간에 증·개축 등 갱신사항이 누락돼 있어 정보 간 연계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본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에 앞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한 건축물대장의 관리 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유사 건축물정보 내에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항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건축물대장 내에 관리항목 및 표기법을 보완 또는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치후

02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5월 개정). 이 법안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각 전략의 지역별 시행계획을 담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14년 말 발표될 예정이며, 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성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수립절차에 관한 지침은 해당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수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탁 과제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	이강민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심경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유광흠
	독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차주영
립되면서,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국가 기본계획의 원칙과 지역 단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녹색건축 정책 현황과 유사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건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민 김승남 수탁과제 01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4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계획 부문, 준공 부문, 사진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중 준공 부문(접수기간 7월 28일-8월 1일)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주택과 1·2층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접수되었다. 사진 부문(접수기간 7월 28일-8월 1일)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작품 접수를 받았다. 현대와 전통의 공존, 자연환경과의 조화, 한옥에서의 일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된 작품이 다수 접수되었다. 준공·사진 부문은 8월에 작품 접수와 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계획 부문 역시 참가등록과 작품접수를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뒤 심사를 마쳤다. 추후 시상식(10월 1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미나실)과 전시회(10월 13~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 문)도 예정되어 있다.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한옥이 급속히 멸실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의 한옥을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한옥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홍보 기회로써 의미가 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한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지속되길 기대한다. 이강민 02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최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범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규범체계 정비 및 구축사업'에 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첫 단계로 문화재청은 해외 주요국들이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규범을 어떻게 마련해 두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연구에 들어갔다. 본 연구는 일본·프랑스·영국·독일의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6개월간 진행되어 11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하위규정, 지침서 또는 해설서, 업무편람 등 관련		

규범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문화재 유형별, 행위 유형별(지정, 등록, 보호, 관리, 활용)로 DB화하며 △각국의 해당 조항 및 조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관련 실무자들에게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해외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관련 규범들을 정비하거나 신규 규범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제도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미

03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 조사 연구

건축서비스산업은 물질 자본을 주요 생산 원료로 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전문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을 주요 투입요소로 하는 고도의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진출을 매개하는 등 국가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증폭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엔지니어링 산업을 제외하고 건축설

계산업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청의 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산업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2014년 6월 5일)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구조적 틀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산업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유광홍

04 독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제도는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다양한 행위를 관리하는 실천적 수단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과 공공의 편익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개발과 공공의 편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1800년대부터 지역별로 발전해 온 도시관리제도를 1960년 연방건설법전으로 일원화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으로 이원화된 강력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전 국토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민간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건설법전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처럼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과 공공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시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과 운영기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와 법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차주영

포럼 및 세미나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월) 오후 2시, 안전행정부와 공동주최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계속되는 사고, 범죄, 재해, 재난으로 인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도시, 마을, 건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각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이성호 제2차관(안전행정부)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기조발제자인 이재은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는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위기관리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를 위협하는 위기 요소, 주요 생활안전 위기의 내용을 소개하며, 안전도시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도시, 마을, 건축 각 분야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신상영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안전한 도시공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현황 및 특징, 국내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사례와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김은희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완료한 10개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동안의 경과, 사업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현행 제도에 비추어, 향후의 장단기적인 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지역기반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셉테드’를 주제로 범죄문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기반의 셉테드(CPTED)의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훈 교수를 좌장으로 정지범 행정관리연구부장(한국행정연구원)과 주제발표자였던 신상영 연구위원, 김은희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패널과 청중들은 주민주도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공감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정 사업목표 설정 및 지역개발 현황과의 연계, 부처별 사업 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의 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축, 도시, 안전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등 총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옥포럼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오래가는 한옥짓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4년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이 지난 7월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2014년 한옥 포럼은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아래 편리하고, 오래 가며, 실험적이고, 알뜰한 한옥 짓기를 주제로 총 4차례가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오래 가는 한옥 짓기'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이기봉 팀장(서울시 한옥조성추진반 한옥조성팀장)이 '한옥수선 가이드라



인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서울시의 노하우가 축적된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한옥에 사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은 주변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과 비례를 고려한 지붕 및 입면계획과 단면계획, 그리고 마당·화단과 현대적인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설비시설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규철 본부장(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은 '100년 주택을 향한 목조건축 품질 인증제'를 주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목조주택시장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5-star 품질인증제의 기준과 인증절차, 그리고 총 9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은 '한옥건축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옥의 법적 정의를 간소화하고 한옥건축기준을 강화하여 한옥의 품격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한옥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 센터장은 한옥의 '디자인과 경관' '안전과 내구성능'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 필수·심 의·권장으로 구분된 인증항목, 그리고 항목당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한옥을 등급화할 수 있는 한옥등급제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국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정기항 이사(㈜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황하진 수석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기준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한옥 정의를 재정립하고 한옥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한옥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한옥 보급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보행도시포럼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이 지난 7월 8일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오성훈 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의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심한별 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 '아마존시범사업의 효과와 과제', 남궁지희 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김지엽 교수가 '보행자 관련 법적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오성훈 본부장은 보행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심한별 연구원은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구역)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시행 후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속도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아마존시범사업을 시행할 때는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궁지희 연구원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배경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며 "후속 사업을 위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에 적합한 포장기법 연구, 대상지별 특성을 살린 설계기법 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지엽 교수는 국내 보행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행자보다는 차량 소통 위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은 김 교수는 보차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권을 보장받기 위해 보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이병민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원목 과장(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김종식 팀장(성북구



교통개선팀), 김중효 선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 오성훈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성과 등을 되짚어 보았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170여 명의 참석하여 보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미나

auri 근린재생 역량강화 세미나 '근린재생을 위한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전략' 개최

도시재생지원기구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린재생 현장의 경험과 사례 소개 등을 통해 근린재생의 다양한 분야(주거,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근린재생 전문가와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근린재생 역량강화 세미나'를 계획하여 올 7월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근린재생을 위한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 이재길 소장(광주 시문화마을연구소)은 '시화마을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전략'이라는 주제로, 광주 시문화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조직·행정조직·지역업체 등과의 협업과정과 그 성과들을 설명하

였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시문화마을 만들기 과정을 소개한 이 소장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하여 지역의 숨어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 유창복 센터장(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 '서울시 마을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보았다.

특히 유 센터장은 "마을만들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리더와 주민의 재능 발굴,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Network)이 중요하며, 주민에게 의사결정권·거부권이 부여되어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담당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와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유도와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대응 방안,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중요한 과제,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매개자 찾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며 △행정 주도의 모임과 행사 개최나 초기에 재정자원을 소진하기 보다는 주민의 관심과 재미를 고취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한두 명의 불평·불만에 흔들리기보다는 다수의 긍정의견에 집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도시재생사업계획상의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지역사회의 정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인재 발굴이 필요하며, 이들이 중간매개자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앞으로도 연구소 내외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 관련자,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는 8월 22일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충남도민, 건축 관련 전문가 및 학생, 15개 시·군 건축·도시 관련 담당 실무자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충청남도로부터 지난해 8월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건축 기본계획과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며,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연구진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조상규 연구위원이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광역건축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김승남 부연구위원이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 충청남도 건축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3대 목표 및 9개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살기 좋고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과 '일상이 풍요로운 건축문화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 6개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친환경 건축·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해 3개 추진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운영태 교수(경희대)를 좌장으로 강인호 교수(한남대), 동재욱 교수(공주대), 박철희 연구부장(충남발전연구원), 이병연 교수(충북대), 이희원 교수(선문대), 조한권 과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흥규 과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이 패널로 참석하여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의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토론을 통해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를 확인하고,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조성계획 통합 수립의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남은 과제수행기간에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뿐 아니라 충남 소재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교수, 충남건축사협회 회원, 시·군 공무원 등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월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며,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건축정책 시행을 위해 도청의 건축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연구소 단신

20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3년 6월 5일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걸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29일), 대전광역시(29일), 부산광역시(30일), 광주광역시(31일)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23조)와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제21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차주영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요」를 시작으로 김은희 부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염철호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설계발주 제도의 개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먼저 차주영 센터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입법과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은희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절차,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주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사전검토 신청서의 작성 방향 및 실행에서 등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은 설계발주방식의 개편방향과 주요 설계발주방식인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개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23개의 국가기관과 70개의 지방자치단체, 74개의 공공기관, 24개의 지방공기업, 12개의 기타 기관 등 모두 203개 기관에서 435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당초 참가신청은 이보다 훨씬 많아 무려 952개 기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때 배포한 자료집(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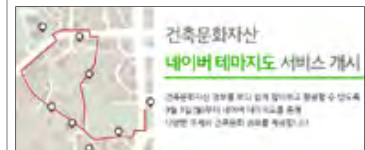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 가이드 및 공공건축설계발주 가이드)은 같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축문화자산 네이버 테마지도 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민들이 우수 건축문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네이버 테마지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건축문화 테마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건축문화탐방'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로 서울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연계한 우수 건축물 답사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8개의 코스로 구성된 '건축문화 테마지도'는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와 동대문, 이태원·남산, 여의도, 홍대·신촌 등 서울의 역사와 건축문화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인기 관광명소를 운행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코스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에 하차해서 선택한 코스를 도보로 둘러볼 수 있다. 서비스는 네이버 웹페이지(<http://me2.do/GID0yOK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별 건축문화자산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그 밖에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한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대중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